

## 양촌선생(陽村先生) “주역천견록(周易淺見錄)”

### 진(晉) ䷢

구사(九四) 나아가는 것이 산쥐와 같으니 바르게 하나 위태로우리라(晉如鼠臨眞厲).

오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쥐는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 움직인다. 사(四)는 천자의 빛 가까이 있고 강(剛)으로서 유(柔)의 자리에 거하여 태양이 하늘에 떠있는 낮에는 두려워 감히 나가지 못한다. “내가 생각건대,이 설에서 ‘산쥐’의 상(象)을 설명한 내용은 좋다. 그러나 ‘두려워 감히 나가지 못한다’면 무슨 위태로움이 있겠는가? 정·주가 ‘탐내면서 사람을 두려워한다’고 한 설을 바꿀 수 없다. 다만 ‘색(覷)’자는 서(覩)를 의부(義部)로 석(石)을 음부(音部)로 하니 둘 사이에 구멍을 파고 있는 쥐를 가리킨다. 둘 사이에 있는 쥐는 작고 빛나는것이다. 구사가 이(離)의 아랫자리에 거하여 빛나고 작으므로 여(女)에서 상(象)을 취하였다. 산쥐는 암석에 오르기를 좋아하고 사람을 보면 두려워하니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탐욕스러우면서도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는 상이다. 창고에 사는 쥐라면 조용히 었드려 어두운 곳에 숨어 있으므로 높은 지위에 있는 상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오징은 ‘두려워 감히 나가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離)에 거하여 빛나고,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마도 산 쥐여야 할 듯하다.

### 명이(明夷) ䷣

명이(明夷)는 어렵게 하고 바르게 하는 것이 이로우리라(明夷利艱貞).

명이는 밝음이 어둠에 의해 손상되는 때이다. 이명(夷明)이라 하지 않은 것은 어둠이 밝음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즉 밝은 사람이 스스로 그 밝음을 흐리게 함으로써 어려움을 피하니 어둠이 그를 해칠 방법이 없다. 비(否)에서는 ‘군자의 바름이 이롭지 않다’고 하였지만 명이 에서‘어렵게 하고 바르게 함이 이롭다’고 한 것은 비는 한 시대로써 말하고 명이는 한 몸으로써 말하여 앞뒤에서 의미를 분명히 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한시대로서 말하

면 막히고 밝음이 스러지는 때는 소인이 뜻을 얻어 군자를해치게 되므로 정녕 군자의 바름이 이롭지 않다. 한 몸으로써 말하면 군자가 어찌 때가 불리하다 하여 자신이 지키던 것을 바꾸어 다른 이를 따르겠는가? 어려움을 알면서도 자신의 뜻을 바꾸지 않고 더욱 바름을 굳게지킨뒤에야 소인들로부터의 재앙을 면할 수 있고, 또한 군자의 도리를 보존할수 있으므로 ‘어렵게 하고 바르게 함이 이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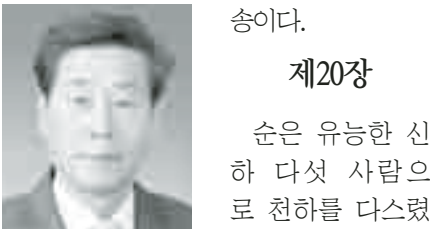
**‘육오(六五) 기자(箕子)의 명이(明夷)이니, 바르게 하는 것이 이로 우리라(箕子之明夷, 利貞).**

이괘는 문왕과 기자(箕子)를 상으로 한다. 문왕이 온전하게 궤의 의미를 얻었으므로 ‘단전’에 “안은 문명하고 밝은 유순하다”라고 하여 두 체의덕을 합하여 말하였다. 기자는 이 한 효의 의미를 얻었으므로 ‘단전’에서“어렵게 하고 바르게 함이 이롭다는 것은 그 밝음을 감추는 것이 다”라고 하며육오의 재질로서 언급하였다. 육오는 뜻 음의 가운데 처하고 매우 어두운 군주에 가까이 있으면서 유순하고 중도를 얻어 아래로 육이와 덕인 갈고 위가 응하니, 안은 밝고 밝은 어두움으로써 어려움과 환난에 처하여 그 정도를 잃지 않는 상을 가지고 있다. 그 때문에 기자를 해당시켰다. 그러나 효에서는 ‘바름이 이롭다’고만 하고, ‘단전’에서는 ‘어렵게 하고 바르게 함이이롭다’고 하였다. 주공(周公)은 기자에게 고유한 덕만을 언급하고, 공자는기자가 안으로부터의 어려움을 처리한 것을 아울러 말한 것이다. ‘단전’에 “그 밝음이 스러진다”고 하고, ‘상전’에 “밝음은 사그러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단전’은 밖으로 드러난 자취를 말하고, ‘상전’은 안에 함축된 덕을 말한 것이다. 비록 밖으로는 그 밝음이 스러지나 안에서는 밝음이 사그러들지 않으니 이것이 기자가 바른 이유이다.

### 가인(家人) ䷤

구삼(九三) 가인이 엄하게 하니 뉘우치고

(다음호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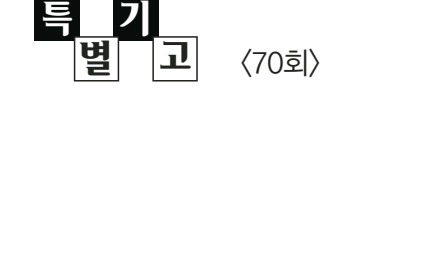


순은 유능한 신하 다섯 사람으로 천하를 다스렸다. 무왕이 말하였다. “나는 유능한 신하 열 명이 있어 정치를 잘할 수 있다.”공자가 말하였다.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더니 과연 그렇지 아니한가, 요 당 순 우 ]의 교체기에는 그만한 인재들로 태평성대를 이루었다고 하나 무왕의 시대에는 부인이 한사람 들어 있으니 실은 아홉 사람뿐이었다. 천하를 삼분하여 그중의 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은나라의 북종하였으니, 주나라의 덕은 그 여말로 지극한 덕이라 말할만하다.”

**【원문】**
舜이 有臣五人而天下治니라
武王曰 予有亂臣十人이라
孔子曰 才難이 不其然乎아
唐虞之際는 於斯爲盛하나
有婦人焉이라
九人而已니라
三分天下에 有其二하시되
以服事殷이니
周之德은 其可爲之也德已矣로다.
【순이 유신오인이천하치니라
무왕왈 자유란십신인이라
공자 왈 재난이 불가연호아
당우지재는 어사유성하나
유부인연이라
구인이니라
삼분천하에 유기가하시되
이복사은이니
주지덕은 기가위자아덕이의로다.]

**【이해】**
순(舜)의 신하 다섯 사람은 우(禹) 직(稷) 설(契) 구요(皋繹) 백익(伯益)을 곱고, 무왕(武王)의 신하 열 사람이었는데 주공단(周公旦)·소공식(召公奭)·태공망(太公望)·필공(畢公)·영공(榮公)·태전(太閔)·광오(闕天)·산 의생(散宜生)·남궁팔(南宮适)·문왕후태사(文王后太似)를 들며, 당은 요임금 호(嚳)이고, 우(虞)는 순임금의 호(號)다. 주는 문왕 때 천하 구주중 형·량·옹·에서·양·荊梁雍豫徐楊)의 여섯을 찾지 하고 있고있고 나머지 삼주인 청(靑)·연(兗)·기(冀)·중(中)·기(冀)만이 은을 따를 뿐이었다. 문 왕은 그래도 둘 딸인 아황과 여명을 시집보내고 재위를 물려주었는데 그로부터 태동된 온갖 공적과 빛나는 문화, 예악, 법도 등속이 너무나 광대하고 찬연하다는 공자의 칭

(다음호에 계속)

(70회)

그러나 적이 수(隋)의 패전을 삼가하여 결코 평양을 직공(直攻)하지 못하고 안시성(安市城)을 먼저 칠 것이니 양장군(楊將軍)은 출진하지 말고 성을 견수(堅守)하다가 적의 포위를 기달하여( 기다리어) 양장군은 내(內)로부터 출격하고 추장군(鄒將軍)은 외(外)로부터 진격하면, 나는 뒤에서 당병의 후로(後路)를 습격하여 그 귀로(歸路)를 끊고 이세민을 생금(生擒; 사로잡음; 생포)하겠다고 말하였다.

#### 7. 상곡(上谷)의 봉화(烽火)와 당태종의 패주

서기 645년 2월에 당태종이 낙양(洛陽) 전(前)에 이르러, 수나라 무후(武侯) 장군으로 수양제를 따라 살수(薩水)전역(戰役)에 참여하였다가, 수나라가 망한 후에 당나라에 투항하고 의주(宜州) 자사(刺史)가 되었다가 지주 연로퇴직(年老退職)한 정원숙(鄭元壽, ?-646)를 불러 고구려의 사정을 물는데, 원숙이 말하기를 ‘요동은 길이 멀어서 보급수송(補給輸送)이 간난(艱難)할뿐 아니라(아니라) 고구려가 수성(守城)하기에 능하여 성을 공발(攻拔)하기 극난(極難)하므로

## 항일독립운동의 선봉 애국지사 백인(百忍) 권준(權俊) 장군<2>

▣ 권 仁 浩 (철학박사, 대전대학교 철학과 교수, 동양철학)

나는 이 길을 매우 위대한 길로 본다’고 말하였다.

당태종이 이 말을 듣고 불열(不悅)하여 말하되 ‘금일의 국력이 수나라에 비할 바 아니니 공(公)은 다만 결과만 보라’하고 떠나면서 그래도 만일을 염려하여 태자(太子)와 이적(李勣, 571-649)에게 후방의 견수(堅守;단단히 지킬 것)를 명하고 드디어 출발해서 요훈(遼軍;지금의 발조수瀋州水)에 이르니 2백리 니녕(泥濘;진창)에 인마(人馬)가 통과할 수 없는 지라, 즉시 군량대장(軍糧大將) 열입덕(閻立德, ?-656)을 명하여 목재와 돌을 운반해서 길을 보수할 때에 수나라 전불장병들의 해골이 처처(處處)에 널어(러) 있거늘, 당태종이 제문(祭文)을 지어서 애곡(哀哭)하고 군신(群臣;여러 신하)들과 장병들을 돌아보며 ‘남일 중국인들의 자제들이기에 이 해골들의 자손이니 어찌 복구(復仇;원수를 갚지)하지 아니하리오’ 하는 장병에 대한 격려의 말을 한 다음에 요훈을 지나서 요하를 건너 뒤에 전사(戰事) 순리(順利)하여 요동(遼東), 마열흘(馬列忽), 백안(白若), 개모(蓋牟), 횡악(橫岳), 은산후(銀山後), 황성(黃城) 등지를 차례차례로 함락(陷落)하고, 다시 이적(李勣, 584-689) 등 제장(諸將)을 불러 군사회의를 열고 새로 진공(進攻)할 계획을 토론할 때에 대장 왕도종(王道宗)은 오골성(烏骨城)을 치고 곧 평양을 공격하자 하며, 이적과 장손무기(長孫無忌, ?-659)

는 안시성을 치자고 주장하였다.

이어 당태종이 생각하되 ‘수양제가 우문술(宇文述, ?-616) 등 제장으로 30만 대군을 보내서 평양을 습격하다가 전군(全軍)이 북(覆滅)한 것에 경계하는 마음이 있어서 왕도종의 말을 듣지 않았고 이적의 말을 써어 먼저 안시성을 진격하기로 결정하였다.

안시성은 곧 환도성(丸都城)인데 혹은 북평양성(北平壤城)이라고도 칭한다. 태조대왕이 서북(西北)을 경영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발기(發城)의 난에 중국에 점령당했다가 고국양왕(故國壤王)이 이를 수복한 이래로 해륙(海陸)의 요충이라 하여 성을 견고하게 가축(牧糶)하고 정병(精兵)을 배치하여 성중에 항상 누(粟)십만석(石)의 양식을 적치(積置)한 난공불락의 요새라 하는 유명한 성이다.

같은 해 6월에 당태종이 이적 등 제장으로 하여금 수십만 대병을 거느리고 성을 위공(圍攻;포위 공격)할 때에 당병이 성에 접근하면 성안의 병사가 이를 사살(射殺)하여 허발(墟發)하는 화살이 없는 지라 이에 당태종이 성을 긴급(緊繫)히 포위하고 성중병사들을 아사(餓死)케 할 계획이나 실로 성중은 양세(糧勢)가 넉넉하고 당병은 비록 가져온 양식이 풍부하나 이미 출병한 지 3-4개월이 되었음으(었으므로) 부족감을 느끼(느끼)고 또한 당군이 비록 요동의 기초(畿城;명 성)을 공점(攻占;공격하여 차지)하였으나 아무 소속이 없는 공성(空城)뿐이요.



양 환, 병들 환, 멸신(滅身)⇒몸을 망치게 함, 滅⇒말할 멸, 끊을 멸, 불 꺼질 멸, 쑹→도끼 부, 군평(君平)⇒전한 무제(前漢 武帝) 때 사당으로 점술가이다.

●利人之言(이인지언)은 爔如繭絮(난연면서)하고 傷人之語(상인지어)는 利如荊棘(이어형극)하야 一言半句-重值千金(일언반구 중지천금)이요 一語傷人(일어상인)에 痛如刀割(통여도합)이니라.

**해설:**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은 따뜻하기가 솥과 같고, 사람을 해치는 말은 날카롭기가 가시와 같아서 한마디 하는 말의 중하기가 천금과 같고, 한마디 말이 사람을 해침은 아프기가 칼로 베 는 것과 같으니라.

**참고:** 이인(利人)⇒사람을 이롭게 함, 면서(繭絮)⇒솥, 繆→솥 면, 絮→솥 서, 형극(荊棘)⇒가시, 荊→가시 형, 棘→가시나무 극, 중지천금(重值千金)⇒중하기가 천금과 같음, 值→값 치, 도할(刀割)⇒칼로 베, 割→베할 절, 痛→아플 통

● 口是傷人斧 (구시상인부)요, 言是割舌刀 (언시할설도)니 開口深藏舌(폐구심장설)이면 安身處處危(안신처처위)니라.

**해설:** “입은 사람을 상하게 하는 도끼요, 말은 혀를 베는 칼이니, 입을 막고 혀를 깊이 감추면 몸이 어느 곳에 있어도 편안할 것이니라.

● 逢人目說三分話(봉인차설삼분화)하되 未可全拋一片心(미가전도일편심)이니, 不怕虎生三個口(불파호생삼개구)요 只恐人懷兩樣心(지공인정양양심)이니라.

**해설:** 사람을 만날 때는 말을 삼분(三分)만 하되 자기가 지니고 있는 한 조각 마음을 모두 버리지 말자니 호랑이의 세 입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로지 사람의 두 마음을 두려워 할지니라.

● 酒逢知己千鍾不投機(주봉지기천종소요話不投機→하보(화불투기일구다)니라. **해설:** 술은 나를 잘 아는 친구를 만나면 천 잔도 적고, 말은 뜻이 맞지 않으면 한 마디도 많으니라.

**참고:**逢→만날 봉, 拋→던질 포, 삼분화(三分話)⇒얼 마디 가운데 세 마디만 하는 것, 話→말씀 화, 전포(全拋)⇒모두 던져버림, 불파호생삼개구(不怕虎生三個口)⇒호랑이에게 세 입이 있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怕→두려울 파, 個→널 개, 樣→모양 양, 只→다만 지, 恐→두려울 공, 情→뜻 정, 鍾→쇠북 종, 술잔 종, 投→던질 투, 機→베를 기, 且→또 차.

## 論語解說(29)

### 논어 해설

▣ 權 貞 澤 花山府院君宗會長 成均館 典儀

### 제16장

공자가 말하였다. “빙자하면서도 고지식하지 않고, 무지하면서도 충후하지 않으며 단순하면서도 신실하지 않은 사람을 나는 이해 할 수 없다.”

**【원문】**
子曰 狂而不直하며 侗而不聽하며 嚚而不信을 吾不知之矣로다.
[자왈 광이부작하며 동이불원하며 공이불신을 오불지지의로다.]

**【이해】**
대개는 어떤 단점이 있으면 그것을 보충하는 장점이 있기 마련인데 전혀 그 얻지 않을 경우에 그 당사자가 일부러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고의로 그렇게 구는 사람이면 필시 교활하고 간사한 품성을 가졌을 테니 그 내심을 헤아리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 제17장

공자가 말하였다. “새로 배우는 것은 더 배우려 애쓰고 알고 있는 것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될까 두려워하라.”

**【원문】**
子曰 學如不及이요 猶恐失之니라.
[자왈 학여불급이요 유공실지니라.]
**【이해】**
공부하는 자세에 대한 공자의 교훈이다. 모르는 것은 배우려 애쓰고 알고 있는 것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될까 두려워하여 지속적인 탐구와 복습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다.

### 제18장

공자(孔子)가 말하였다. “드높고 크다. 순(舜)과 우(禹)는 천하를 차지하고서도 그것에 관여하여 집착하지 않았다.”